

# 배재 장학재단 추진현황 보고

2005. 10. 7

배재대학교 총동창회

## 장학재단 설립 후원의 밤 개요

- ◆ 목적 : 총동창회의 숙원사업인 장학재단 설립을 통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인바, 후원행사를 통하여 우수후원인 발굴 및 재원을 마련코자 행사를 개최코자 함.
- ◆ 행사예정일시 : 2005. 10. 21(금) 저녁 7시
- ◆ 장소 : 오페라 웨딩 4층 컨벤션 홀

## 장학재단 단계별 발전전략



## 장학재단 회의

### ◆ 8월 26일 조신형 총동창회장 배재학당 재단이사 회의

### ◆ 8월 30일 : 학과동문회장단과 회의

장학재단 후원의 밤 행사와 각 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동창회 임원진과 각 학과 동창회 임원진 9개 학과 대표들과 회의를 가졌으며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같다.  
평생교육원, 유아교육과, 경영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등등 모임에 참석한 각 과 대표님들의 좋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앞으로 장학재단에 대한 희망적인 활동방향 제시됐음은 물론 각 과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지원계획도 수립하였고 장학재단 후원의 밤 행사에 대한 임원진들의 활동을 보장하기위한 지원금도 집행하였다.

### ◆ 9월 1일 동창회이사진과 실무 회의

#### -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후원의 밤 개최 건(1차)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회장님의 설명을 시작으로 김성완전회장님과 유아교육과 송영란 회장, 이승복이사, 이은춘 이사등 동창회 임원진과 장학회 이사분들과의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988년부터 2005년 지금까지 지 모아온 2억 4천을 후원의 밤을 통하여 3억을 만들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나누었다

모금목표 1억 5천만원을 모아야 되는데 우선 학과별 동문회에서 300~500만원 지원해 주어야만 장학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고 장학회 이사들도 500만원은 약정해야 되며 현재의 이사회비는 90년대 학번 30만원, 80년대 학번 50만원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20% 미만의 납입이라서 미납 이사회비를 장학회 기금으로 인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홍보하고 기념물은 후원금낸 사람에 한해서 동판을 만들 예정이다. 유아교육과가 50년역사로 제일 길고, 동문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 많은 협조를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협조사항들은 소모임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회장님 또한 유아교육과 행사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답례도 있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을 체계화 할려면 이사선임이 먼저 우선되어야 준비가 원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각 과별로 이사를 추천하여 선임하자는 의견으로 압축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각 과에서의 대상자 추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학과별동문회 임원모임을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장 : 실무자들이 직장일과 동창회일을 병행하느라 힘들텐데 잘 따라주어서 고맙다.

장학재단 만들려면 사무국장 남자가 있어서 월급을 주면서 잘되게 해야 할 것 같다

◆ 9월 14일 동문 대표들과의 회의

- 장학재단 설립 후원의 밤 교수,교직원,조교,총학생회 면담

장학재단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14일 정원에서 동문교수,교직원,조교,학생회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교직원 대표로 참석한 윤석웅 총무는 기획서에 예산 계획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장은 1,5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이지만 차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수정이 될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장학회장으로 되어있는 민경직 직전회장과 만남을 가진 박정규 부회장은 결론적으로 민경직 회장은 장학회장을 못하겠다고 입장을 말하였다고 전달했다

이에대해 윤석웅 총무는 각 역대 회장단에 대한 본분이 명백하게 맞지 않는다. 본인(민경직 회장)이 어렵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기금 마련을 못한다는 것이고, 민경직 회장을 우선적으로 본분을 명백하게 하고 입장정리를 한 후에 추진 위원장이 못한다고 해버리면 그 직을 내놓는 다는 것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조신형 회장은 이사회 구성이 총동창회(동문)끼리 하려니 후원금 내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5명중 50%는 외부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떨것느냐 하는 말에 교직원 대표를 맞고 있는 임용혁 회장은 신입생동창회비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며 명분도 없기에 50% 이상도 가능하다면 섭외하는 것도 좋다하였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총학생회장 강대철 학생은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조교 대표인 정영례 조교는 아직 미약하지만 최대한의 협조로서 행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었다.

◆ 9월 15일 9월 정기이사회

- 장학재단 설립 후원의 밤 행사 준비 건(2차)

1차 실무회의를 통하여 일부 이사들과 학교 관계자의 재단 설립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양하여 2차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및 개인적인 입장들을 논하는 자리를 갖었다. 각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조신형 회장의 장학재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타당성 즉, 장학재단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제로서 일부 이사들의 보류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처음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

**참고발언**

[회장의 노력에 돕지는 못할망정 회장의 이익이 될까봐 장학재단 설립을 하지 말자고 한다면 동문 자격이 없다. 재단이 회장에게 도움도 없고 오히려 배재대로 인해 주변사람에게 신세만 지는데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동문회를 훼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 언제까지 동문들은 방관하며 신입생 펀드에 의존할 것인가? 이대로 가면 참여율 측면에서는 1년이든 10년이든 상황은 똑같다.총동창회에서 5년 이상 한푼도 기부 받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선배들이 만원씩이라도 내고, 학과별 동문회를 이번 기회에 활성화 시키자] 라는 회장의 발언을 통하여 임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장학재단은 만들 수가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사진들에게 다시하번 굳은 결의를 가지게 하셨다.

장학재단 설립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이 2,000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말들이 있어 음해성 유연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후원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면 문제가 있으며 당당하게 후원을 하면서 앞에서 말하도록 하자는 말씀도 있었다.

후원의 밤은 2000만원도 많기에 돈 많이 들지 않을 범위 내에서 계획하도록 실무자나 기획사에 권고하였으며 약 1,50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공연은 시립예술단, 배재 재학생 공연, 저비용 가수를 섭외하여 비용을 줄이고 디너파티형으로 간단하게 하고 오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만 초청하여 준비 하기로 하였다

#### ◆ 9월 22일 긴급임원회의 - 장학재단 설립 후원의 밤 행사 건(3차)

[조신형 회장의 제안 설명]

- ① 장학재단 후원의밤 일정이 가까울수록 호응도 및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학과 동문회나 평생교육과정 동문들의 호응도는 좋았지만 내부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 ② 민경직 직전 회장 등 역대회장님들의 협조가 없어 문제.
- ③ 외부인사의 후원의 경우 500만원 정도의 기부예정자들이 있는데 현재 장학재단이사 납입금(200만원)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

박병권 수석부회장은 내부인 동창회 이사들로부터 2,000천만원 기부금 확보가 안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우선 장학재단설립을 위해서 이사진들의 이사회비 미납금을 완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다고 하였으며 설명배 이사는 교수, 교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이라도 협조 받도록 노력 하겠다 했으며. 박정규 부회장은 현 시점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되 회장님의 현 직책(시의원)에 대한 동창회 이사진들의 시각이 호응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현 임원진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오히려 동문 정치인을 마음적으로 도와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원들의 결의에 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직 동창회 이사진들의 이사회비 납부가 선행 되어야 하며 차후 교수, 교직원들에게 모금 추진
2. 현직 임원들의 이사회비 미납금액(1,500만원) 조기 납부 확약과 재단이사회비 500만원 납부자 여부를 파악
- 3.파악된 결과를 9월 29일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행사 실시 여부를 확정토록 함

#### ◆ 9월 29일 9월 2차 이사회의 - 장학재단 설립 후원의 밤 행사 건(4차)

9월 22일 긴급임원회의를 통하여 세부준비사항에 대한 임원들의 활동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수석부회장은 장학재단 이사들과 긴밀한 면담을 통하여 장학재단 이사회비에 대한 80%이상의 확답을 받았으며 박정규부회장은 이사들을 만나 장학재단 후원금 이사회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조신형회장은 동창회에서 이사회비도 안낸다는데 어떻게 행사를 한다고 하는지 외부에서 말들이 많다는 우려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납입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재확인을 하였으며 현 장학재단 이사인 수석부회장도 이말에 동의를 하

였고 나머지 장학재단 이사분들과 만나서 인상 여부를 물어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박정규 부회장의 동창회에 참석을 이제까지 못했는데 이사회비를 내달라고 하니 확답을 제대로 못하고, 참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7명은 긍정적으로 얘기 했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면 다 낸다고 말을 하지 안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한 미술학과에서 30점을 하는 걸로 하고, 100만원을 동창회가 미로회에 지급하는 걸로 미술학부 이영우 교수에게 협조를 받았다.

### 10월 총동창회 임원진 진행사항 보고

#### - 장학재단 설립 후원의 밤 행사 건(후원금 납입현황보고)

9월 29일 이사회의를 통하여 장학재단 이사진들의 장학재단 이사납입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우선, 현 장학재단 이사분 중에는 민경직 전회장, 조신행회장, 박병권수석부회장, 이은춘 이사가 각 500만원씩을 납부확정 하였으며 각 과 동문회에서는 원예학과 동문회, 유아교육과 동문회가 각 500만원씩을 납부확정 하였다. 외부인사 중에는 건축사(사) 대명 대표인 최영대님께서 500만원을 납부확정 하였다. 이중 김성완회장은 현재 약정금액을 보류하였다.

배재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장학재단 준비를 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오며,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 바랍니다.

## 배재대학교 총동창회